	보도자료	배포일자	11. 24(화)	매수	2매
		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		
	공공의료본부 지역책임의료팀	실 장	한 은 주	☎	054-530-3042
		담 당	최 화 연		054-530-3019

상주적십자병원,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



사진설명: "퇴원 후에도 살던 곳에서 의료·돌봄 이어져야" 2026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간담회를 통한 협력 방안 논의

□ 상주적십자병원(원장 김혁수)은 11월 24일(화) 지역 내 의료. 보건.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「2026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간담회」를 개최했다.

□ 이번 간담회에는 상주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를 비롯해 상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TF팀, 상주시보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,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실무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서는 ▲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내용 및 선별 기준 ▲2026년 사업 추진 실적 ▲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관별 역할과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.

□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협력해 온 상주시청 통합돌봄TF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.

□ 상주적십자병원 지역책임의료팀은 2021년부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, 퇴원 이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·보건·복지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왔다.

□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, 퇴원환자의 건강 상태와 개별적인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 이를 통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돌봄의 연속성을 강화하고,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·복지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.

□ 상주적십자병원 김혁수 원장은 “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의료·보건·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